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인가정 어린이 24명으로 구성된 '짱뚱이와 두루미 합창단'이 최근 순천시 덕월동 순천제일대학 대운동장에서 가족과 부모, 친지 등 5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합창을 하고 있다. '짱뚱이와 두루미'는 세계적인 명소인 순천만에 살고 있는 짱뚱어와 두루미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린이가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께하는 우리

희망이 싹터요

다문화가정 및 한국인가정 부모들이 순천제일대학 운동장에서 열린 '짱뚱이와 두루미 합창단'의 공연을 지켜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차별·편견의 장벽 넘어 "우리도 대한민국 가족입니다"

⑪ 다문화 2세들의 '희망 찾기'

광주·전남 1만명 시대…이들의 바람은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는 것

지나친 관심보다 열린 마음으로 포용·맞춤형 교육 시스템 갖춰야

"아이들이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광주일보 취재진이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 가정 2세들의 꿈·희망·대안찾기) 기획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문화 가정 부모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었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1만명을 넘었음에도 이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라나도록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은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 자녀는 지난해 말 현재 1만527명이다. 이 가운데 3699명(35.1%)은 초·중·고에 재학 중이다.

그러나 사실상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시범교육만 실시되고 있을 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 피부색이나 서투른 우리말 때문에 정신적인 갈등을 겪어도 고충을 들어주거나 해소해줄 전문상담사 등 복지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박재석(가명·11·초교 5년)군은 다문화 가정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던 그는 "제가 외계인 처럼 보이나봐요. 정말 제가 외계인인가요"라고 토로 했다고 한다. 다문화가정 스스로 아픔을 치유하면서 고통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겪는 심각한 학습장애다. 취학전은 물론이고 재학중에도 우리말에 능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학부가 박영아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학력위기 학교(기초학력 미달비율이 30% 이상)에 광주와 전남·북을 통틀어 모두 24개교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서도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학습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도 시급하다.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2세들에 대한 학습 보조 프로그램인 '방문교육지도사' 제도도 겉돌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의 숫자가 부족한데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수혜기간이 5개월로 묶여 장기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자신의 꿈을 개척하는 희망을 보여준 다문화가정 2세도 있다.

전남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정은(가명·18)양은 충남에 있는 국내 대기업의 한 회사에 입사해 화제가 됐다. 국내에서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이 이뤄진 시점이 지난 2006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사회적인 무관심에도 홀로 성장해 꿈을 일궈낸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에 맞서며 당당히 살아온 그녀도 사진을 취재해 얼굴을 공개하는 것 만은 한사코 거부했다.

"직장 동료들은 물론, 누구에게도 자신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불이익을 받을 것 만 같아서"가 이유였다.

화순 천태초등학교는 다문화시대 공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한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마음의 벽을 허물기 위해 '도암 밭노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날마다 함께 부대끼며 공연을 하면서 학생들간 도타운 정이 솟아나면서 학교의 문화가 바뀌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물론, 한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이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천태초등학교는 이례적인 케이스다. 현재 전남지역 초·중·고교 834곳 가운데 다문화 가정 2세들이 재학중인 학교는 568곳(68.1%)에 달하지만, 다문화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는 광주·전남을 넘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외국인 근로자선교회 석창원 목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차별을 겪지 않고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육·복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복지를 소홀히 하면 광주·전남의 미래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 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5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쇼핑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GS백화점 옆):032)329-4400 부산 서면B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구 동명극장 앞):055)745-9870 창원점(한마음병원 뒤):055)284-5055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구.도청 옆):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입구):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 국제품질 ISO 9001인증 /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 구)도청옆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 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